

“클래식 음악 자주 접하게 하는 것 우리들의 의무”

창단 20주년 공연 마친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유정 대표

1999년 시향 단원 20명으로 시작
 객원지휘자 체제로 매년 다른 콘서트
 재능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

“20주년 기념음악회는 공연의 의미가 남다른 만큼 정통 클래식 선보였습니다. 40분짜리와 45분짜리 곡으로 이뤄졌는데 무거운 분위기에 긴 시간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기침소리 하나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 너무 감사했죠. 클래식도 자주 접하면 익숙해지고 또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가진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김유정 대표는 창단 기념 음악회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정통 클래식'을 시민들이 어려워할까 생각하는 것도 선입견임을 깨달았다는 그는 클래식을 자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년 동안 지역에서 공연 기획을 많이 해왔는데 쉽고 재밌는 음악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며 “광주 시민들의 공연 관람 태도도 많이 성숙해졌고 또 정통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최근 광주시향 정기회원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그런 육구들을 우리 단체들이 충족시켜줄 의

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광주시향, 목포시향 여성 단원 20여명이 모여 만들어진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현재 90여 명의 단원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480여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광주시민들과 만나온 이들은 2011~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돼 광산문화예술회관을 거쳐 현재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1년 이전까지 대관사업을 주로 해오던 광산문화예술회관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활약으로 전국 최우수공연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다른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상임지휘자가 없다. 객원지휘자 체제로 매년 다른 지휘자를 초청한다. 매년 다른 콘서트의 공연과 연주자들의 긴장감을 위해서다.

김 대표는 “매 공연마다 좋은 지휘자를 초청해 연주하고 있다. 공연 콘셉트에 따라 알맞은 지휘를 해줄 수 있는 지휘자를 모신다는 점에 있어 좋다. 단원들도 긴장감을 갖고 유명 지휘자와 함께 공연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다”며 “그동안 41명의 지휘자들이 다녀갔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들도 많다. 관객들도 지휘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년 다른 기대감을 가져주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연은 물론이고 청소년·다문화가정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도 10여년 동안 펼치고 있다. 프로 연주자 단체로서 재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무료 악기 교육 경우는 지난 2010년부터 운영, 75명 규모의 다문화M 오케스트라를 육성했다. 이를 통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올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0월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위한 특별 음악회 ‘주사위 음악 그리고 피터와 늑대’를 앞두고 있다. 주사위 음악은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주사위를 던져 곡을 만드는 놀이다. 16마디의 미뉴에트와 16마디의 트리오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값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 조합해 곡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곡은 무한하다. 이를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모든 가짓수를 수동으로 컴퓨터에 입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번 공연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무대로나 주사위를 던지면 곡이 만들어지고 이를 연주해주는 형식이다.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번 공연은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겁다.

김 대표는 “어린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전에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기고 이를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광주극장에서 가족과 추석연휴를

한가위특별상영 '녹색 광선' 등 2편 '블루노트 레코드' 특별 상영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추석 기간, 옛 생각에 젖을 수 있는 광주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극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극장 문을 열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광주극장은 추석기간 12~15일 추석 특별전 등 다양한 영화를 관객에 선보인다.

추석특별상영작으로는 프랑스에서 가장 문학적인 영화감독으로 평가받았던 에리크로메르의 고전 작품 2편이 준비됐다. '보름달이 뜨는 밤'과 '녹색 광선'이다. '보름달이 뜨는 밤'은 1984년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파스칼오지에가 출연한 작품으로 '두 여자를 가진 자는 영혼을 잃고, 두 집을 가진 자는 이성을 잃는다'는 격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녹색 광선'은 쥘 베른의 동명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희극과



'셀부르의 우산'

격언' 연작 다섯번째 작품으로 1986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기획전 '광주극장 아트바캉스, 휴'에 상영돼

큰 호응을 받은 '블루노트 레코드'도 12~18일 3회 특별상영된다.

1939년 뉴욕의 작은 음반사로 시작해 80년째 역사로 불리는 '블루노트'의 음악과 뮤지션, 레코딩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개봉하는 작품도 있다.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뮤지컬 로맨드 영화 '셀부르의 우산'이다. 지난 1965년 국내에 개봉한 이후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되는 작품이다. '셀부르의 우산'은 1957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항구도시 셀부르에서 우산가게를 하는 아가씨 쥘비에브와 자동차 수리공 기의 애뜻한 첫사랑을 담은 낭만 로맨스이다. 지난 1964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1965년 제37회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제38회 아카데미 영화제 주제가상과 음악상에 연이어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우리집' '별새' '이타미 준의 바다' '동물, 원'도 추석 연휴기간에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혜진기자 hj@srb.co.kr

사비백제 건축 내부 양식 확인

'부여 화지산 유적'에서 사비백제 건물지 발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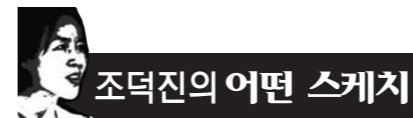
부여군과 백제고도문화재단의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유적 발굴조사 2차 성과다.

이번에 공개된 유적은 7월에 확인한 건물지의 외곽을 두르는 배수구에 무너져 내린 기와를 제거하면서 새로 발견된 건물지의 적심시

설, 기반시설, 건물지 내부 시설이다.

특히, 기와 하부에서는 벽체의 심벽으로 추정되는 목탄흔적이 확인됐다. 심벽은 기둥 중심을 기준으로 골조를 도드라지게 만든 벽체다. 2018-1호 건물지와 2019-1호 건물지의 서쪽배수구에서 물을 이용한 의례 관련시설로 추정되는 유구도 확인됐다. 출토유물은 기와류가 주를 이루며 연꽃무늬 수막새, 도장이 찍혀거나 글씨가 새겨진 기와 등이다. 뉴스

디자인비엔날레와 공동체, 그리고 광주



조덕진의 어떤 스케치

"반 시계루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재해 현장을 돌며 적은 비용으로도 단순하고 위엄 있는 피난처와 공공건물을 지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도왔다. 그의 인도주의적 헌신은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주관하는 하얏트 재단이 2014년 건축가 반 시계루(일본)에게 상을 수여하며 더한 상찬이다.

반 시계루는 1994년 르완다 내전 난민을 위해 종이 임시건축으로 난민 삶을 지원했다. 그의 인류애적 건축 행위는 비영리 단체 '자원건축가네트워크(VAN)' 설립으로 전 세계로 확장됐다.

2016년 프리츠커는 칠레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이키케 빈민주택이다. 부족한 정부지원금으로 절반을 짓고 나머지를 주민들이 보태서 짓게 했다. 인도 도시 빈민주택이 그의 대표작이다.

프리츠커는 국적·인종·교리·이념을 초월해 1979년 이후 매해 세계 최고의 건축가에게 수여된다.

올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휴머니티'를 주제로 본격 막을 올렸다.

아름다운 주제에도 전시장에서 디자인의 인본주의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궁금하다면 5개 관 중 제2관 국제관을 찾아 보길 권한다. '다음세대에게 주는 선물' 코너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과언이 아니다. 바우하우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바우하우스 정신과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의 만남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바우하우스는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건축·디자인학교다. 말이 건축디자인학교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건축을 중심

으로한 종합예술학교다. 이곳에서는 수학, 음악, 퍼포먼스, 건축, 디자인 등 통합적 예술 교육이 행해졌다. 바우하우스의 혁명적 혁신정신은 '아름답고 멋진 건축·디자인이 아닌 '삶의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데 있다.

이들은 전쟁기간 집을 잃은 독일 서민들을 위해 최소의 공간, 최소의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공학과 수학, 예술 등 당대 모든 지적산물을 종합해 건축을 모호화했다. 당시 바우하우스가 선보인 건축 기법과 정신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의 영향은 건축에 국한하지 않는다. 바우하우스의 정신과 예술은 이후 건축, 디자인 등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20세기 예술의 중심을 이룬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세기 산업디자인의 상징과 같은 디터람스가 독일 건축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우하우스 후예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도 빈민가와 도심 밀집지역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건축디자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리츠커 상은 어쩌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복무하는 세계 최고 건축가와 작품에 보내는 지상의 찬사와 감탄이다.

올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 '인류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로움'을 '지속가능한 가치'로 인식할지, 돈이 되는 '이익'으로 변질시킬지는 그 사회의 미래가 달린 일일 것이다.

'광주'에서 전개되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국사회에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공동체를 생각케하는 작은 낱갯씨일지. 광주발 예술의 공동체 정신, 광주의 아름다운 한 얼굴과 맞닿아 보인다. 아트플러스 편집장 김문희체육부장

원시공동체사회 환경과 인간관계

무등현대, 오늘부터 10월말까지 환경미술제 '21세기 토테미즘' 전 나지수·오상조 등 작가 참여 전시

원시공동체사회의 '토테미즘'을 통해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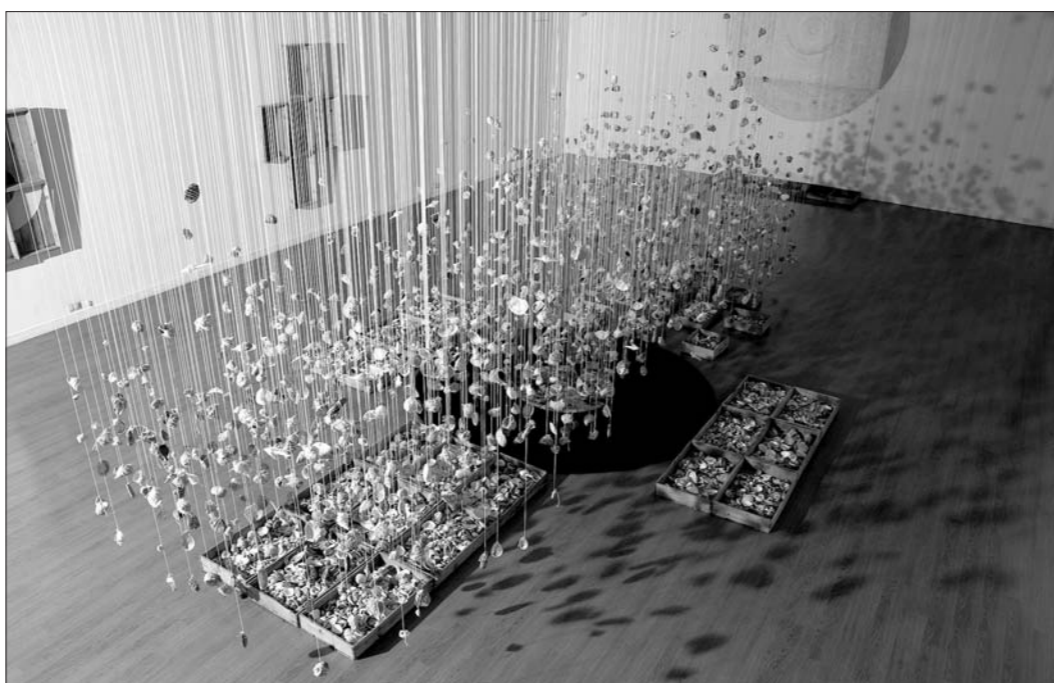
무등현대미술관은 10일부터 10월말까지 제1 전시실과 야외무대에서 제7회 환경미술제 '21세기 토테미즘'전을 개최한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지구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국제환경미술제 '보존이 미래다' 전부터 매년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7회째인 올해 전시는 신령의 영혼을 기제하는 운반체로서 인류 문명의 기원과 메시지를 계승하고 있는 '토테미즘(totemism)'에 주목한다.

세상의 모든 관념은 사회 존재의 반응이며, 관념은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혹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창조된다.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원시공동체사회의 '토테미즘'을 통해 동·식물, 자연물의 공통의 기원 등을 알아보고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낸다.

이 자리에는 금의수·나지수·문학열·박병우·오상조·윤남용 작가 등이 참여한다. 또 성연호·최희원·한정희 작가도 야외 무대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학열 작 '공명과 순환'

이들은 다양한 매체로 신화적 접근을 시도해 자연에 대한 현대적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위로와 따뜻한, 지친 마음을 멈추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의 진실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원시 '토테미즘'에서 배우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공간, 생명이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변화

를 몸소 체험하며 인간과 자연, 문화예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교감하는 자리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 기간에는 도슨트의 전시 해설이 상시 진행된다. 오는 10월 5일과 12일, 19일에는 미술관 교육관에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나의 토테미즘 만들기'가 개최된다.

김유경기자 okkim@srb.co.kr